

호주, 식품산업 동향

권 오 복*

호주에서 식품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2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문이다. 연간 2%가 넘는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호주 식품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세계 식품 시장은 규모가 큰 다국적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 유통점 등에 의해 국제화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국제화와 그에 따른 경쟁 심화가 호주 식품 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아래는 지난 3월초에 호주 농업전망대회에서 발표된 호주 식품 산업 동향을 옮긴 것이다.

식품산업 개요

1970년대 이래 호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내에서 식품 산업의 비중은 대략 20%로서 주요 산업 부문 중 하나이다<그림 1>. 지난 10년간 식품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 정도로서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인 1.9%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추세에 있다.

지리적으로 식품산업의 분포는 인구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호주 식품 산업의 상당부분이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과 같은 동부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그림 2>. 1998~99년부터 2002-03년까지 호주 식품 산업의 성장은 주로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이뤄졌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bkwon@krei.re.kr 02-3299-4210

그림 1 호주 제조업의 부분별 구성(부가가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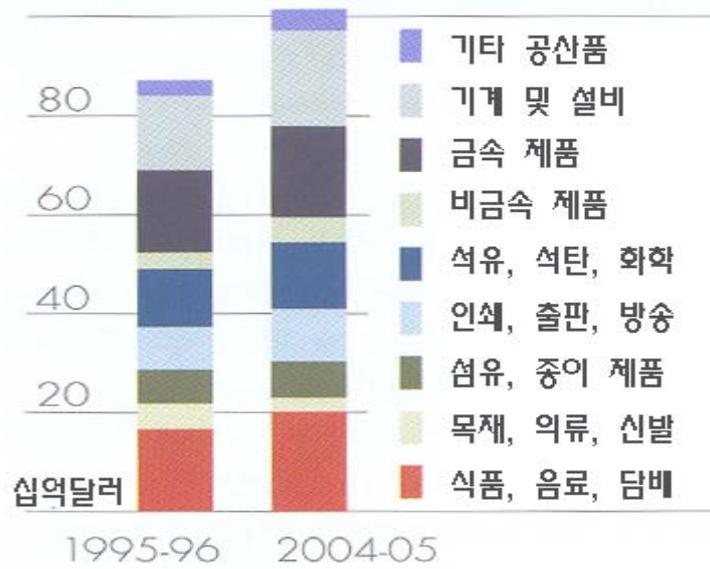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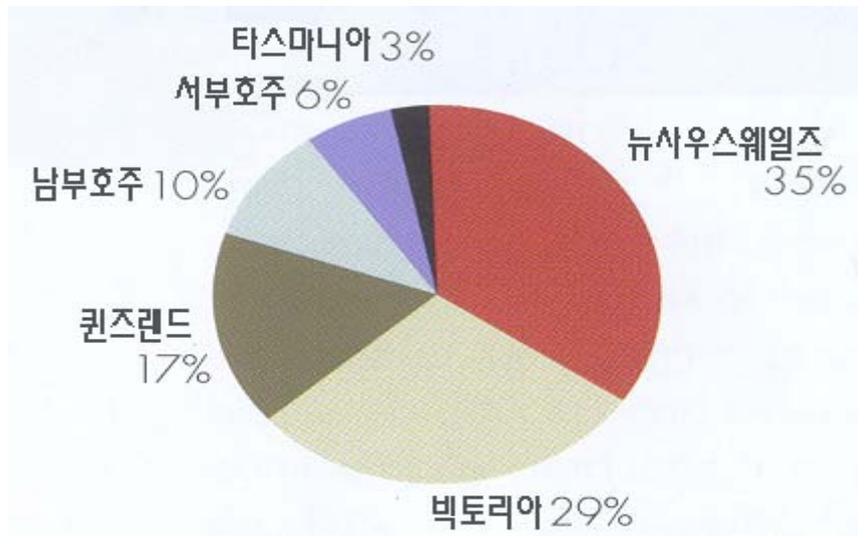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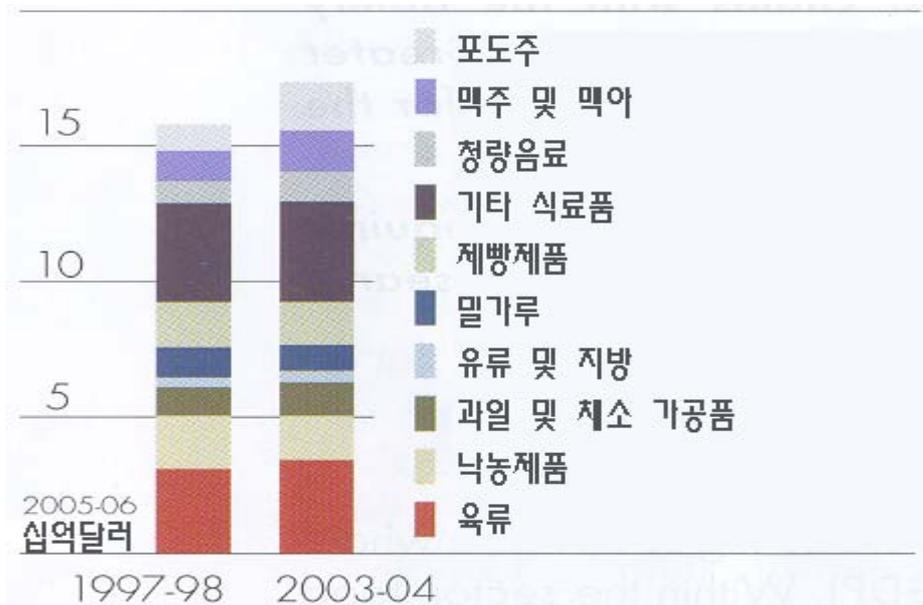


그림 2 호주 식품 산업의 주별 분포, 2002~03



<그림 3>은 호주 식품 산업의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육류제품과 기타식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다. 과거 5년간 식품 산업내 부문별 성장세를 살펴보면 포도주, 맥주, 맥아, 청량음료, 시럽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포도주가 식품 산업에서 가장 큰 산업은 아니지만 1997~98년부터 2003~04년간 포도주 생산이 두 배로 늘어나 2005~06년 달러 기준으로 생산액이 17억 달러에 달했다. 그 다음에는 음료와 육류 제품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두 부문의 부가가치가 각각 3억 달러 가량 늘어났다. 이 중 육류 제품은 식품 산업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 2005~06년 화폐가치 기준으로 2003~04년 부가가치가 34억 달러에 달했다.

그림 3 부문별 호주 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호주 국내 소비

호주에서는 식품 소비 지출 변동폭이 소득 변동폭보다 작아 식품 소비 지출이 소득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편이다. 1988~89년부터 2003~04년까지 식품 소비 지출은 단지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연평균

식품 소비지출이 0.2%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식품 중 가금육, 해산물, 신선 과일과 채소에 대한 소비 지출은 증가한데 비해 육류, 계란, 곡물, 설탕에 대한 소비 지출은 감소했다. 1948~49년 이래 호주 국민의 전반적인 소비 패턴은 수산물과 같은 고가치 식품의 소비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왔다.

식품 수출

1995~96년부터 2004~05년까지 호주의 식품 수출은 연평균 2% 증가율을 보여 40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로 증가했다. 최근 포도주와 낙농제품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육류 제품 수출이 전체 식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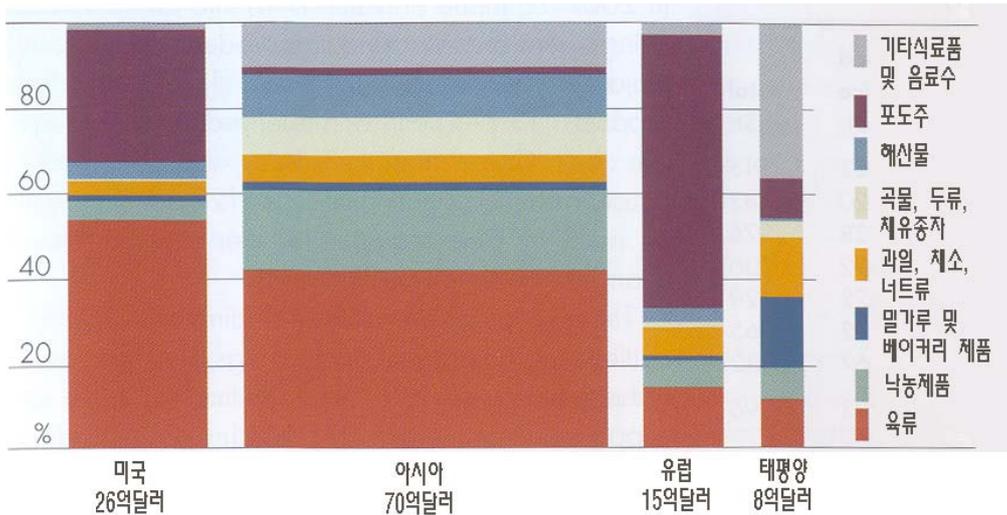
퀸즈랜드는 호주에서 제3위의 식품생산 주이지만 수출면에서는 제1위 주이다. 퀸즈랜드의 연간 식품 수출은 2005~06년 기준으로 50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육류 제품과 설탕 수출액이 각각 30억 달러, 10억 달러이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가 호주의 최대 식품 수출시장이다<그림 4>. 아시아 전체적으로 70억 달러 상당의 식품을 호주로부터 수입한다. 수출품 구성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경우 호주의 대 유럽 수출은 15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포도주의 경우 유럽연합은 호주 최대의 수출 시장이다. 반면 미주와 아시아 지역엔 육류가 가장 많이 수출된다.

식품 산업의 고용 및 생산성

식품산업의 노동 및 기타 요소 생산성이 높아 과거 20년간 이 분야 고용상황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연도별 고용은 식품 산업 전체의 소득 변화와 더불어 다소의 변동을 나타냈다. 이러한 변동은 가뭄, 홍수, 폭풍과 같은 기후 요인에 의해 원료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판매액의 변화 또는 소비패턴의 갑작스런 변화에 의해 야기된다.

그림 4 지역별 호주의 식품 수출 추이



연구개발 지출

식품 산업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생산 시설의 입지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 때문에 각 주별로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다르다. 1997~98년부터 2003~04년 사이 식품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출의 대부분은 빅토리아 주에서 일어났다.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주 식품 연구개발 지출은 호주 전체 식품산업 연구 개발 지출의 70%를 점한다. 식품 연구 개발 지출은 주로 종업원 규모가 200인 이상인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약 88%)와 기타 경상비이다.

시장 집중

대형 다국적 기업이 세계 식품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시장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다. 호주에서 식품 산업 수입(收入)의 75% 가량은 50개 기업이 차지하였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이 외국인 소유이거나 상장기업이다. 그러나 이들 50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

면 우유의 경우는 이들 상위 50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95%에 달하는가 하면 수산식품은 7%에 불과하다.

50대 기업의 절반 가량이 외국인 소유 기업들이다. 이들 외국인 소유 기업이 호주 국내 식품 산업 수입(收入)의 45%를 차지한다. 상장 회사, 조합, 민간 기업들이 호주 국내 식품 산업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14%, 10%이다.

공급체인

2001~02년 식품산업의 투입 구성을 보면 원료농산물 32%, 주요 서비스 26%, 노동력 17%, 식료품 13%, 기타 공산품 투입재 12% 등이다. 식품 산업의 산출물 중 43%는 가계가, 22%는 수출, 33%는 타 산업의 투입재로, 2%는 재고로 이용되었다.

쇠고기, 낙농제품, 양고기, 가금 및 돼지를 포함하는 육류제품 산업이 가장 큰 산업이다. 2001~02년 육류제품 산업은 150억 달러에 달하는 육류제품을 공급했다. 육류제품산업에 대한 투입 구성을 보면 농산물이 57%로 주종을 이루고, 주요 서비스와 노동력이 그 뒤를 잇는다. 주요 서비스안에는 수송과 저장, 도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육류제품의 소비처를 보면 산업용이 37%로 주종을 이루고, 수출 (32%), 가계소비(25%)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세계식품추세

2002년 기준 세계 식품의 매출액은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이중 가공품이 약 70%를 차지하여 주류를 이룬다. 포장 식품은 약 1조 9,0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세계 식품 산업의 두드러진 추세는 중, 저소득 국가에서 1인당 식품 소비

표 1 세계 식품 판매액, 2002

단위: 10억 달러

	소매점	식품서비스	계
신선식품	531	382	913
가공품	1,762	1,420	3,182
포장식품	1,148	828	1,976
음료	614	592	1,206
알콜 음료	316	422	729
핫음료	53	12	65
청량음료	245	167	412
계	2293	1,803	4,096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다.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1인당 식품 소비증가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그림 5>. 저소득 국가의 경우 가계 지출의 47% 정도를 식품 소비에 지출하는 데 비해 고소득 국가는 가계 지출의 12%만이 식품 소비에 지출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식품 소비 구성도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6>. 어류, 낙농제품, 육류소비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모두 증가한다. 반면 곡물, 유지류, 과일과 채소 비중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경향을 나타낸다.

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 소비의 반응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식품 종류별로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반응의 크기와 범위가 다르다. 고소득 국가일수록 소득 변화에 대한 식품 소비 반응이 둔감한 반면, 저소득국일수록 소득 변화에 따라 소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비자 기호의 변화

소득이 높고 낮은 국가간에 소득 증가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산업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점

점 줄어든다. 소득이 높은 국가의 경우 인구 증가율이 낮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기업들은 상품 차별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리려 할 것이다.

그림 5 가계소비중 식품 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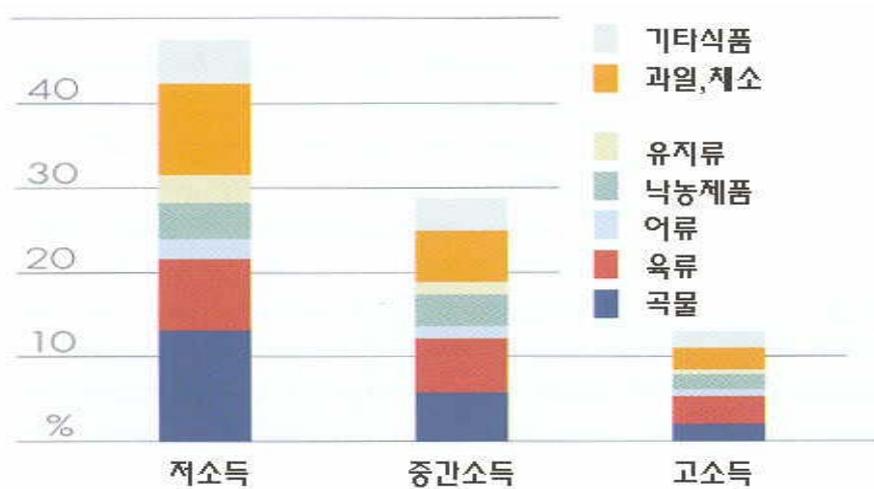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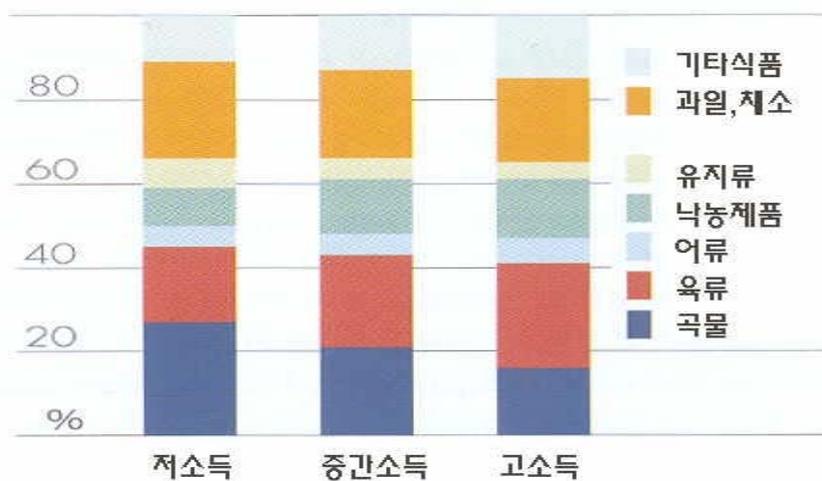


그림 6 품목군별 식품 소비 추이



산업입지와 무역

상대적으로 소수 기업이 세계 식품가공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세계 전역에 공장을 갖고 있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가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유명 상표와 생산 시설의 소유가 상당정도로 집중되어 있지만 식품 가공 산업의 입지는 지배적으로 한 지역 또는 국가내에서 제조와 물류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원료, 노동 및 자본 투자 등 식품산업의 투입재 시장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비록 식품 가공산업 원료 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더라도 수출 목적으로 가공 식품을 생산하는 데 반드시 비교우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공 공장이 국제적으로 어디에 입지하느냐는 식품제조업의 경제적 특징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대부분의 제조과정이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에 자본 및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식품을 제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다.

원료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부존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가공식품의 입지 조건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정제설탕, 녹말, 곡물과 같은 부패하지 않는 원료 농산물은 영양학적 가치나 품질의 손실없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수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교역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다. 교역 관련 비용 범주에는 수송비, 여러 지역에 대한 공급 관리를 위한 물류 관리 비용, 각종 법규 또는 규정에 부합하는 데 소요되는 커뮤니케이션 및 거래비용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교역량이 감소할 수 있고, 가공식품의 최종 시장이 원료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과 더 멀리 떨어져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공식품의 국제무역은 대부분이 지역간에 이루어지기보다 일정 지역내에서 이뤄지는 지역적인 성격을 띤다. 이것은 식품의 수출입이 주로 아시아 내에서, 유럽연합 내에서, 북미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무역 패턴으로 인해 식품 가공 시설은 주로 최종 소비 시장에 근접한 곳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국가간 식품 가공 시설이 입지하게 된다.

호주의 식품 수출 실적

한 산업의 장기적인 수출 실적은 비교우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상품 생산에 특화하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경제적인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수출 농산물의 95% 정도는 원료 농산물 형태이고, 일부 품목만이 가공품 형태로 수출된다. 호주는 식품 수출 중 매우 미미한 비율만이 과자와 같이 정교한 가공을 거친 제품들이다.

호주 식품 수출의 75% 가량은 수출시장에서 호주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제품들이다. 또한 식품 수출의 35% 정도는 해당 지역 수출 증가가 세계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호주 식품 수출의 35% 정도가 시장규모가 날로 성장하는 곳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수출의 6% 정도는 시장이 축소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시장에서는 호주가 식품 수출의 시장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Christopher Short, Courtney Chester, Peter Berry, and Lisa Elliston, "Australian Food Industry", in Australian Commodities Outlook 2007,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s Economics(ABARE), 발췌정리